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와 섹슈얼리티 연구*

: 『창』을 중심으로

장미영**

차례

1. 들어가는 말
2. 낭만적 사랑의 허구와 고립적 섹슈얼리티
3. 열정적 사랑의 추구와 관계적 섹슈얼리티
4. 나오며: 연민의 확장과 공감적 사랑의 재구(再構)

〈국문초록〉

이 연구는 박경리의 1970년대 발표한 대중연애서사 『창』에 드러난 사랑의 의미와 섹슈얼리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작품은 대중연애서사의 전형적 특성인 남녀 간 연애가 중심서사이다. 그러나 작품 속에 드러난 남녀의 연애는 사랑의 사적 의미와 사회적 담론을 포함하고 있어 작가의 세계관의 변화는 물론 1970년대 성과 사랑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포착할 수 있다.

1970년대 발표한 대중연애서사 『창』은 박경리가 본격적으로 『토지』를 집필하면서 동시에 발표한 몇 안 되는 작품으로, 자전적 서사를 넘어 사회와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세계관이 확대 되던 시기에 쓰인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인물의 시점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결벽한 사랑의 추구에서 현실직시와 연민을 통한 공감적 사랑으로 사랑의 의미가 변모하고 있다.

---

* 『창』은 1970년 8월 15일부터 1971년 6월15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고, 1980년 지식산업사에서 박경리문학전집 15권으로 발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산업사에서 발간한 것을 텍스트로 삼겠다.

** 숙명여대 아시아여성 연구소

또한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중심의 규범적 섹슈얼리티에 저항하고 경합하는 행위 주체로서 개인의 근대적 섹슈얼리티를 발견할 수 있다.

박경리는 대중연애서사를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과 사랑에 관한 사회적 변동과 규범적 인식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박경리의 보편적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생명사상의 단초가 되고 있다.

핵심어 : 대중연애서사, 성, 섹슈얼리티, 사랑의 의미, 낭만적 사랑, 공감, 규범, 관계적 섹슈얼리티, 공감적 사랑

1. 들어가는 말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시대 혹은 산업화 경제부흥의 시대로 한국사회의 사회 경제적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개발독재,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과 고착, 사회적으로 도시화와 인간소외의 심화, 문화적으로 대중소비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공식처럼 떠돌아다니는 정의가 아니더라도 1970년대는 한국사회에서 특수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흡사 아감벤이 명명한 '예외상태'1)처럼 아노미적 정국에서 대중의 감추어진 욕망은 꿈틀대고 관습적인 사고체계와 충동하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정치적 독재체제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문화의 발흥기이자 청년문화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군사독재의 시대이자 대중문화의 발흥기라는 상호 이질적인 시대 정의는 거대한 정치사회학적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었던 1970년대 일상과 문화에 대한 탐색의

1) "예외상태는 궁극적으로 규범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게 위해 규범을 그것의 적용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예외상태는 어디까지나 현실에 대한 효과적인 규범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노미의 지대를 법속에 도입하는 셈이다." (조르조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75쪽)

필요성을 촉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대중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일상의 변화는 당대 문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1970년대 문학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선정성[2]은 박경리 문학 속에서 대중성 확보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당대 대중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물론 박경리가 지향하는 사랑[3]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시대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성의 문제는 자아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남녀관계의 주체성은 물론 사회적 담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근대사회로 이행의 핵심은 개인의 탄생이고, 개인이 중심 되는 사회구조와 토대에서 개인의 성과 섹슈얼리티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규범, 심리적 구조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4]. 개인이 중심이 되는 근대사회로의 이행기 특성은 박경리 소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전근대적인 운명의 굴레 속에서 마술처럼 인간의 삶을 좌우하던 저주도,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 벌인 가장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전쟁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박경리는 전쟁과 전쟁의 후유증으로 몸서리치던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은 제기한다. 이러한 물음은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

2) 1970년대 문학의 선정성은 이른바, '호스티스문학'이나 '창녀문학' 또는 '상업주의적 대중문학'이라는 일컬어지는 일련의 신문연재 소설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설들 또한 1970년대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성의 상품화, 성 문제의 대두 등 당시 성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정옥, 「산업화의 명암과 성적 욕망의 서사- 1970년대 '창녀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 29집, 2001, 397-388쪽 참조)

3) 박경리 소설의 사랑의 의미와 낭만성을 탐색한 연구로는 방은주,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3; 고지혜 『박경리 소설의 낭만적 특성 연구」, 고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정미숙, 「박경리 애정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유형과 특성 연구」, 호서대 석사학위 논문, 2009; 박창범, 「『토지』의 사랑 양상과 그 의미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015, 191-220쪽 등이 있다. 이들 논문에는 박경리 문학에서 사랑의 의미는 단순히 남녀 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 소외, 생명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 요소로서 박경리의 궁극적인 세계관을 관통하는 주제로 파악하고 있다.

4)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1-지식의 의지』, 나남, 2004(제6판), 23-45쪽

사적인 영역인 남녀 관계, 그들의 사랑[5]과 섹슈얼리티로 이어지고 있다.

박경리는 『애가』[6]를 시작으로 신문연재 소설을 쓰면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고, 이념적 경사 없이 작품 활동을 하였다.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러 『토지』를 집필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박경리는 통속 멜로 드라마적 특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7] 이 시기는 당대 상업자본의 언론 출판계 유입으로 대중지 출판이 활성화 되고, 이들 대중지는 흥밋거리 위주의 상업성을 드러내 대중문화 전파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던 때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박경리의 소설은 대중소설로 치부되기 보다는 대중성을 띤 본격소설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왔다. 박경리의 소설이 본격소설과 대중 소설의 구분이 강화되던 시기에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낭만적 연애의 결말을 행복한 결혼으로 마무리하는 도식성을 탈피하고, 대중연애서사의 기본 공식을 따르기 보다는 전후세대의 세계관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일반적인 연애서사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술의 상업화와 '검열'을 통해 문학이 국가의 통제 아래 있을 때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던 박경리 문학의 대중성 확보는 작가의 순수한 상상력의 발로로만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

5) 본 연구에서 '사랑'은 개인의 감정 상태로 국한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체계화 된 타인의 세계준거를 내면화 하는 일"이자 "매체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소통 코드로서 즉 그것의 규칙들에 따라 감정을 표출하고 형성하고 모사할 수 있게 해주고, 타인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보거나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 그 규칙들에 따른 소통이 실현될 때 생기는 온갖 결과들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코드"라는 루만의 정의를 따른다.(니클라스 루만,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 새물결, 2009, 36-45쪽)

6) 박경리, 『애가』, 〈민주신보〉 , 1958에 연재되었다.

7) 박경리의 1970년대 장편 소설에 대한 연구로는 김은경, 「박경리 장편소설의 인물 정체성과 현실 대응 양상의 관계;<영원한 반려>, <나비와 엉겅퀴>, <단층>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1, 한국현대문학회, 2007, 301-353쪽; 조윤아, 「가해자를 통해 드러나는 도덕의 딜레마: 박경리의 장편소설 『창』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44, 중앙어문학회, 2010, 341-364쪽; 장미영, 「박경리 1960, 70년대 장편소설 연구- 가족관계의 갈등과 화해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273-298쪽; 이상진, 「예외를 보는 시선과 더블- 박경리 소설의 결손 인물」, 『여성문학연구』 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351-382쪽 등이 있다.

있다. 문학이 인간의 삶을 재현하고 닮아있다면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정서, 감정[8], 시대 인식 등은 당시 사회적 환경과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 관계 속에 놓여있을 것이다. 박경리 문학의 독자성은 당대 대중의 정서와 시대 인식, 감정 구조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탐색한 결과이자 작가가 추구하는 세계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박경리의 소설『창』에 드러난 대중연애서사는 남녀 개인의 주체성 확립의 방편이 되고 사회와의 교섭과정을 드러내고 있어서 단순한 남녀 간의 감정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서 섹슈얼리티[9]를 확인할 수 있다.『창』의 연애서사는「표류도」,『김약국의 딸들』을 포함한 1960년대 쓰인 연애서사와 차이를 보인다.『창』이전의 연애서사에서 핵심적인 갈등 요소는 정조관념, 신분의식, 가족주의 질서의 균열 등과 같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창』은 남성 중심적 규범에 저항하고 경합하는 개인의 분열적 자아를 통해 새로운 규범을 모색하고 있다. 이때 분열적 자아는 여성인물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인물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인물이 보이는 분열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 맺

8) 감정은 일반적으로 슬픔, 두려움, 기쁨, 희망, 분노, 감사, 미움, 질투, 지시, 동정, 죄의식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간의 내면적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상태나 욕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개인이 타고나거나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곧 나타날 수 있는 행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의미한다. Andersen, P. A. & Guerrero, L. K.,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emotion: Research, theory, applications, and contexts*. Academic Press, 1997, pp.5-6; 이희은,「감응 연구의 관점에서 본 '현재'의 부재」.『언론과 사회』, 제 22권 1호, 2014, 42-43쪽 재인용.

9) 섹슈얼리티(sexuality)란 '신체적 차이, 성욕, 욕구, 출산 능력, 젠더 정체성들과 같거나 서로 다른 수많은 신체적 심리적 가능성들이 한데 묶여 고안된 역사적 구성물'이다.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성 행동은 물론 인간이 성에 대해 갖는 환상. 꿈,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신념, 이해심 및 개인의 존재 의미 등을 지칭 한다. 여기에 포함된 개인의 사고, 감정, 가치관, 신념, 취향 등이 사회 • 문화적 영향 하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섹슈얼리티 또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우리의 신체적 쾌락과 욕망을 살아내는 문화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조주현,『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000, 110-111쪽.)

기를 통해 극복되거나 좌절되고 있어, 작품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맺는 사랑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교류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창』은 1970년대 쓰인 장편소설로 등단 초기 결벽한 자아를 가진 여성인물의 자전적 서술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사회로 시선이 확대되고, 1960년대를 거쳐 본격적으로 『토지』 집필에 매진하기 이전에 쓰였고 작가의 세계관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특히 『창』이 신문연재소설로 통속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서사의 심층을 구성하고 있는 전복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1970년대 박경리 장편소설 중 대중연애서사에 대해 흥미본위의 대중소설이라는 단편적인 문학적 평가와 본격적인 연구에서도 배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2. 낭만적 사랑[10]의 실패와 고립적 섹슈얼리티

박경리 문학은 결벽한 여성인물 중심의 서사, 자전적 서사적 특성 때문에 세계인식의 한계 혹은 여성 작가적 한계[11]로 지적 받아왔다. 그러나 박경리 문학 속 인물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차이에 따라 위계적이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왜곡과 인습으로 인한 위악[12]적 요소에 대해 끊임없

10) 낭만적 사랑은 본질적으로 여성화된 사랑으로 규정되었고, 기원에서부터 친밀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낭만적사랑은 어떤 정신적 커뮤니케이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성격을 띠는 영혼의 만남을 가정한다.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친일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2003, 77-88쪽 참조.

11)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정명환, 「폐쇄된 사회의 문학」, 『한국작가와 지성』, 문학과 지성사, 1966; 조병무, 「자의식의 문학」, 『현대문학』, 1965; 채진홍,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확인」,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 소설가들』, 나남, 1994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12) 이와 관련하여 박상민, 「박경리 『토지』의 악의 상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44-60쪽; 구연상, 「서양 철학의 전통적 악 개념과 『토지』의 악(惡) 개념에 대한 비교 검토」, 『대동철학』, 63, 대동철학회, 2013, 179-199쪽; 홍준기, 「악과 폭력에 관한 형이상학적, 정치신학적, 정신분석적 연구」,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9,

이 저항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비인간적인 구조와 관습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속악한 현실의 자본주의 논리는 인간관계마저도 물질적 교환 가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박경리 소설에서 개인은 『김약국의 딸들』에서 '비상 먹고 죽은 자손은 지린다'는 계시처럼 가문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운명이 좌우됐다면, 근대사회의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기존 관습에 대한 저항이자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인간관계마저 돈으로 거래되는 상황은 권력화 되는 자본의 흐름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직감하게 한다. 또한 가문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겪게 되는 삶의 소용돌이는 주체의 탄생을 예고하고 이러한 시대상은 박경리 문학의 중심 서사 중 하나인 대중연애서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창』은 이전에 여성 인물의 입장에서 서사가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전락한 남성인물이 중심이 되어 그려가는 연애서사로 이전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남성의 섹슈얼리티[13]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달리 주체적인 것으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별개의 의미를 따져 묻지 않았다. 그러나 당연시 되었던 유교주의 남성중

한국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17, 135-175쪽 등을 참고 하였다. 박경리 소설 속 '악'의 형상화는 서양의 전통적인 철학에서 '동기'와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과 달리 '동기'와 '결과' 사이의 얽히고설킨 관계를 살펴야 하는데, 선한 동기가 선한 결과로, 악한 동기가 악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동기와 결과의 불일치에서 드러나게 되는 관계의 규명이야 말로 사건의 진짜 동기와 결과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박경리 소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사에서 가해자인 인물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은 박경리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던 드러나게 되는 사건의 핵심이자 박경리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13)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성과 섹슈얼리티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주체로서 받아들여졌으며, 여성과 달리 1894년 첩 제도를 폐지하기 이전까지 일부일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벗어난 불륜에 대한 사회적 처벌은 미미했다.

심사회에서 사랑의 의미와 섹슈얼리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재구(再構)될 수밖에 없었다. 근대사회에서 남녀의 결합은 가문을 지속하기 위한 집단 간 협상과 성적 거래가 아닌 상호간 애정을 바탕으로 낭만적 사랑의 교환 과정이자,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경리 소설에서 결혼은 낭만적 사랑의 결과적인 것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낭만적 사랑'[14]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늘 통제와 규율의 대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라는 사회문화적 변화는 남성에게도 새로운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가학적인 섹슈얼리티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사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랑의 개념과 섹슈얼리티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박경리 소설 속에는 아직 낭만적 사랑을 둘러 싼 사회구조가 안정화 된 상태가 아니어서, 남성도 여성도 사회적 담론도 성과 섹슈얼리티에 관해 혼란과 충돌의 상황이었고 사랑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15]은 맹시헌, 맹시애 남매의 과거 실연한 사연과 피폐해진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진정한 사랑의 탐색이라는 연애사가 중심 서사를 이룬다. 맹시헌과 관련된 애정서사는 과거 맹시헌과 아내 김정자, 내연녀 송기화 사이의 삼각관계, 현재 불륜관계인 지숙과 집안일을 돌봐주고 있는 여주댁의 딸 선영과의 삼각관계가 기본 축을 이룬다. 맹시헌은 과거 한국전쟁 중에 아내와 아들을 집에 두고 홀로 도망치듯이 피난을 떠났다가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서사의 표면적으로 맹시헌은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져 인생을 방기하며 사는

14) 낭만적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이다. 그러나 박경리 소설에서 낭만적 사랑은 있는 그대로 온전히 상대를 인정하는 순수한 관계를 의미하며, 육체적 결합이나 가족을 이루는 완성적인 결과를 목적하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와 소통을 지향하고 있어 이는 결국 남녀를 초월한 인간애로 이어지고 있다.

15) 조윤아는 『창』을 '아버지로서의 책무, 권위, 죄의식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자유에 초점을 맞춘 서사'(343쪽)로 분석하고 있다. 조윤아, 앞의 글.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 그는 학병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아버지가 주선한 여자 김정자와 결혼을 하여 아들까지 두었지만 해방 후 바깥 활동을 하며 송기화 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의 연애와 상관없이 아내인 김정자는 맹시헌과 헤어질 생각이 없었다. 더군다나 아들까지 둔 마당에 그녀는 악착같이 맹시헌에게 매달린다. 전쟁이 터지고 맹시헌은 애인 송기화와의 사랑을 위해 처자를 버릴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

> 맹시헌은 서울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매일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고 있었다.
>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화하고 결합될 수 없다!)
>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 (전쟁이 아니냐? 이북에 가족을 남겨두고 단신 월남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 좀더 일찍 떠날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맹시헌은 마지막까지 남았다. 그는 거의 자포적인 심리상태였었고 얼굴은 해골같이 여위어 있었다.[16](52쪽)

그는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혼자 마지막 기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죄의식에 어딘지 모를 곳에서 뛰어내렸고 서울로 돌아갔지만 이미 아내와 아들은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후 부산으로 간 맹시헌은 기화와 만나 동거를 하게 되었지만 아내와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기화에게 '병적인 학대를 가했다'.(52쪽) 그러던 중 기화는 시헌의 학대에 못 이겨 약을 꺼내 먹는 시늉을 했지만 시헌은 기화를 말리지 않았다. 냉정한 시헌에게 실망한 기화는 한밤중에 뛰쳐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만다. 이후 맹시헌은 누구와도 감정적 교류 없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자학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죄의식과 자책에 사로잡힌 맹시헌은 관계를 맺는 모든 여성에게 잔인할 정도로 학대를 하고 냉정하게 대하는데 그가 보이는 학대는 자신을 향한 폭력의 변형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가학의 충동은

16) 박경리, 『창』, 박경리문학전집 15, 1980, 이후 인용은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선영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가학은 아니었을까? 자기 영혼에 솟아나는 무구(無垢)한 애정에 대한 학대임이 분명하다.'(292쪽) 집안일을 돌봐주고 있는 여주댁의 딸 선영을 사랑하게 되고 그 감정을 알게 되었을 때 시헌이 보인 반응은 잔인한 학대와 추궁이었다.

시헌이 여성인물과 자신에게 보이는 가학적 섹슈얼리티는 가장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닌 감정을 교류하며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남성으로서 애정관계를 꿈꾸지만 성인 남성에게 사랑보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과 임무가 우선적이다. 결국 시헌이 아내와 연인 기화 사이에서 겪는 갈등은 가장의 역할과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한 남자로서의 대립으로 볼 수 있으며, 낭만적 사랑의 선택이 몰고 온 파국은 여전히 당시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개인의 행복보다 공동체의 의무에 방점이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맹시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남성의 섹슈얼리티의 변화 조짐은 남성이 여성의 성적 욕망과 육체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성 자신을 향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랑방식이라 여겨지던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맹시헌은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 관계 외적인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관계 그 자체의 내적인 속성에 따라 형성되고 지속되는 관계'17)를 꿈꾼다.

> 실상 본인들 자신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애정이었는지 모른다. 하기는 사람마다 애정이란 형형색색이어서 남이 그 심부를 넘겨다볼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 그것은 수수께끼요, 영원한 비밀이다. (274쪽)

맹시헌에게 사랑이란 '영원한 비밀'이자 자신의 죄까지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관계이며 있는 그대로 서로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

17)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103쪽.

그러나 가족을 버리고,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을 방조하고, 육체적 쾌락은 나누되 마음을 나누지 않는 지숙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맹시헌에게 주어진 현실은 가혹하고 순수한 관계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 선영을 사랑하게 된 시헌은 자신의 지나 간 과거를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된다.

맹시헌과 마찬가지로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관계를 꿈꾸는 인물로 맹시헌의 여동생 시애과 동거 중인 진우섭이 있다. 병든 맹시애를 보살피며 애정관계에 있던 진우섭을 통해 드러난 남성의 섹슈얼리티도 관습적인 것은 아니다. 진우섭은 전쟁 중에 부모를 모두 여의고 숙부 밑에서 자란다. 숙부는 진우섭이라는 한 인간을 보살펴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상속된 재산을 노리고 동거했을 뿐이다. 성인이 된 진우섭은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하면 온전히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진우섭의 경제력을 보고 결혼을 한 것이어서 모든 재산을 숙부에게 빼앗긴 진우섭과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

> "여자는 내게 돌아올 재산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던 거지. 그는 나를 무능력자라고 비난했다. …(중략)… 따뜻한 가정만을 원했었지. …내가 절망한 것은 …(중략)…타인의 눈이더군. 생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여자였더란 말이야."(63쪽)

결혼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최소한의 친밀성마저 소거된 진우섭 부부의 모습과 전통적으로 부부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남성이 경제적인 이유로 버려지는 상황은 익숙한 광경은 아니다. 이후 진우섭 역시 고립적인 삶을 살게 되고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키고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을 병든 시애 곁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병든 시애마저도 치료비를 댈 수 없는 우섭의 경제적 무능함 때문에 시애의 과거 연인이었던 하상호에게 빼앗기고 만다.

진우섭이 경제적 무능함 때문에 남성으로서 주체성을 잃었다면, 맹시헌과 불륜 관계인 지숙의 남편 김재경 사장은 늙었다는 이유로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받아들인다. 지숙과 김재경 사장의 부부관계도 관습적인 모습은 아니다. 바람난 첫 부인과 이혼을 하고 젊은 여자 지숙과 재혼을 했지만, 늙은 김재경은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숙의 성적욕망을 채워줄 수 없어 그녀의 불륜 사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다. 지숙에게 집으로 들어올 것인지 육체적 욕망을 좇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고 지숙을 용서하는 모습은 전통적으로 '정숙하지 못한 여자'에게 가해진 징벌과는 거리가 있다. 떳떳하지 못한 과거, 경제적 무능함, 나이로 인해 아내의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남녀 관계에서 타자화 되고 있는 이들 남성의 모습은 과거 이유 불문 성적 우위에 있던 모습과는 판이한 양상이다.

시애의 전 연인이자 이봉희 여사의 남편인 하상호 역시 전통적인 남성상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하상호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자처해왔으며 사업가들이 허다하게 저지르는 외도와는 담을 쌓은 명실 공히 모범적인 남편이었다.'(74쪽) 아내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하상호는 새로운 가장의 모습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내가 채워주고 이끌어준다고 믿고 있는 하상호는 과거 시애와 연인 관계일 때도 수동적이었고, 결혼을 한 지금도 아내에게 의지하며 산다. 과거의 애인이었던 시애에 대한 책임감으로 요양원에서 지낼 수 있게 경제적 지원해주었지만 아내에게 들키자 아내가 시키는 대로 시애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집으로 복귀하는 인물이다. 젊어서는 연인인 시애와 어머니가, 현재는 아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그는 관계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창』은 남녀관계의 구조가 달라지고, 여성적 사랑의 방식을 추구하고, 여성을 소유와 억압의 대상이 아닌 사랑하는 상대로 여기며, 규범적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허물어진 남성 인물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적 위계의 변화 조짐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의 변화되고 있는 섹슈얼리티는 남성인물 묘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남성성의 표현을 남성의 지위, 권력, 경

제력 등 사회적 능력이 아닌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얼굴', '곱상스러운 외모', '우수에 젖은 눈빛'과 같은 외모에 따라 매력과 호감을 나타내고 성적 매력을 부각시키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인물의 외양을 통해 선악을 보여주거나,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은 박경리 소설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이다. 그러나 『창』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아닌 성적 매력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남성인물이 보여주는 가학적이며 고립적 섹슈얼리티는 여성을 향한 것이 아닌 남성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며 남성에 대한 사회적 섹슈얼리티 담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3. 열정적 사랑의 추구와 관계적 섹슈얼리티

박경리 소설 『창』에 드러난 남성에게 달라지기 시작한 사랑의 의미와 가학적이며 고립적 섹슈얼리티는 여성인물이 추구하는 사랑과 변모된 섹슈얼리티와 연결되고 있다. 맹시헌과 맹시애 남매를 통해 드러난 변화된 섹슈얼리티는 박경리가 감지한 새로운 사랑의 의미와 남성, 여성의 섹슈얼리티라 할 수 있다.

『창』의 맹시애와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한 다른 한축의 애정서사는 열정적 사랑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성 욕망에 솔직한 여성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맹시헌의 여동생인 맹시애는 젊은 시절 하상호의 어머니가 자신과의 관계를 반대하자 집안의 전 재산을 훔쳐서 밀항을 하러 도주한다. 그러나 가지고 나온 돈을 모두 도둑맞고 어쩔 수 없어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지만 하상호의 어머니는 더욱 극심하게 둘의 관계를 반대한다. 하상호와 헤어질 수 없었던 시애는 하상호의 집에 불을 질러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반신불구 상태가 되었고 가출을 한 시애는 폐병이 걸려 진우섭과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상태이다.

과거 하상호와의 관계에서도 현재 진우섭과 관계에서도 애정관계의 주도권은 여성인 시애가 쥐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편이 상대방을 더 사랑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여성인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현재 병든 상태의 시애에게 여전히 그 선택권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애가 애정관계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의 주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시애를 통해 드러난 열정적인 사랑은 남성에게 선택을 받고 상대방에게 의지하게 되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지양한다.[18] 과거 어머니 말에 휘둘려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하상호를 이끈 것도 시애였고, 현재 아내에게 의지하고 있는 하상호의 감정을 일깨운 것도 시애다. 하상호는 시애의 열정적인 사랑에 이끌리고 감정의 동요를 경험한다. 스스로 아내에게 모범적인 남편임을 자부하지만 시애 앞에서는 혹시라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까 전전긍긍하고 질투하는 남성일 뿐이다.

'따뜻한 가정을 가지고' 싶었던 진우섭에게 시애는 진우섭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며 그가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사랑해주고 지지해 준다. 하상호의 도움으로 병을 고치고 요양하게 되었을 때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진우섭에게 먼저 헤어질 것을 말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고 한 것도 시애다. 시애와 진우섭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이끌림 이상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존재만으로 충족되는 그런 사랑이다. 시애와 진우섭이 보여주는 사랑은 가족도 친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남녀 간의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와 의미를 보여준다.

격동의 시기인 1970년대 공동체의 와해와 인간소외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약화는 오히려 작가로 하여금 병들어도, 경제적으로 무능해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더라도, 죄를 지어 처벌을 받았어도 사랑이 가능하지

18) 젠더적 관점에서 볼 때 낭만적 사랑은 특별한 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빠져들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불균형적 관계가 되고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낳게 된다.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105-112쪽 참조)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현상적으로 드러난 조건이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애와 진우섭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여성인물로 맹시헌과 불륜관계에 있는 지숙을 들 수 있다. 지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젊음과 욕망에 솔직한 인물이다.

> (악인이면 어때? 악마면 어때? 내 인생이 내일 끝난들 어떻단 말이냐?) 의혹은 오히려 지숙의 애정을 자극했고 종잡을 수 없는 이 사나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망이 치열하게 불탄다. 만날 때마다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매양 되풀이 되는 마음의 과정이지만."(40쪽)

> 「나 당신을 사랑해요. 이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당신하고 함께 죽고 싶어요. 다 소용 없어요. 당신, 당신 마음만 내게 있음, 무슨 일이라도 다 겪겠어요.」(112쪽)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억압되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담론의 기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 되면서 담론화[19] 된다면, 여성에게 '불륜녀'라는 것은 가장 억압적인 지칭중 하나일 것이다.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규범은 이중적이어서 남녀가 간통을 한 경우에도 남성의 간통은 남성으로서 남성성을 드러낸 것으로 혹은 주체적인 성욕망의 표현으로 이해되는 반면에 여성은 부도덕하고 규범에 어긋난 것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으로 매장을 감수해야 할 만큼 엄중한 비도덕적 행위이다. 지숙은 맹시헌의 잔인함과 빈말로 희롱하듯 내뱉는 결혼하자는 말에 낙담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관계를 끝낼 수 없다. 지숙이 맹시헌에게 느끼는 감정은 정신적인 것 보다 육체적인 욕망에 기반을 둔

19) 이성숙, 『여성, 섹슈얼리티, 국가』, 책세상, 2009, 17-40쪽 참조.

감정[20]이다. 맹시헌의 외모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감각을 살린 묘사가 표현되어 있어 남성의 성적인 매력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지숙에게 모성을 묻거나 아내로서의 정숙함을 요구하지 않는 서술태도는 당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의 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단죄 없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말과 여전히 사랑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갈등하는 지숙의 모습은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집으로 돌아온 지숙은 대문 앞에서 '어째서 나는 혼자 설 자신이 없는가. 어딘지 나를 위한 새로운 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도 젊고, 아아'(346)라고 갈등을 하며 열려진 대문을 '운명의 아가리'같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작정 가정을 박차고 나오지 않는 것은 성적 욕망만큼 놓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해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고도 경제적 안정과 자식을 외면할 수 없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지숙은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여성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숙의 갈등에는 불륜을 저지르고 육체적으로 타락한 몸에 대한 혐오[21]는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어머니로서 모성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지숙에게 자식과 어머니라는 호칭은 지숙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지 단죄의 근거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김약국의 딸들』에서 첫째 용숙이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하였

---

20) 맹시헌에 대해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사십은 훨씬 넘은 듯 보였다. 분명 중년 남자에 틀림이 없겠는데 조용한 용모에서 수줍음을 타는 소년과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19쪽), "남자의 뒤통수, 솟은 어깨는 바위같이 완강하여 여전히 지숙을 용납하지 않는 냉엄함을 나타내고 있었다"(121)과 같이 외모로 풍기는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묘사를 하고 있다.

21) 혐오는 대상에게 끌리는 감정, 욕망과 반대로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감정이다. 시안 느가이는 끌림에 비해 "혐오는 급박하고 구체적"이며, 다른 감정에 비해 참기 어렵고 흔히 즉각적인 신체 반응과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김미현, 「혐오의 매혹- 코맥 메카시의 『피의 자오선』, 『미국소설』 18권 2호, 미국소설학회, 2011, 29-30쪽.

을 때 용숙을 향한 비난과 지탄을 떠올린다면 자녀도 있고 유부녀인 지숙이 시헌과 불륜관계를 맺고, 남편에 들통이 난 다음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여전히 자신의 성적 욕망에 갈등하는 모습은 도덕적 관습을 벗어난 여성의 일탈적 섹슈얼리티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숙과 시헌과의 관계를 애정관계로 규정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적 쾌락은 나누고 있지만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거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맹시헌이 사랑의 감정과 감각을 다 잊고 소멸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생각을 깨는 계기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집안일을 돌봐주고 있는 여주댁의 딸 선영과의 우연한 만남이 있고나서이다. 선영은 중학교 미술교사로 대학까지 나오고 기품 있는 여성이었지만 식모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고 아들도 빼앗긴 채 혼자살고 있다. 선영에 대해서 지숙은 '기품이라고 해야 하나', '인간적인 폭', '강한 개성', '겸허함은 여유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119쪽) 라고 느낀다. 지숙의 선영에 대한 인상은 맹시헌이 느끼게 된 신선한 충격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준다. 맹시헌은 선영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된다. 자기가 저지른 죄와 죄책감, 죄지은 몸으로 선영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는 좌절감 등은 선영에 대한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선영은 맹시헌의 구애에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선영의 단호하고 의지적인 모습은 맹시헌에게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감사한 일은 감사한대로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는 추동력이 된다. 맹시헌은 선영에게 고해성사 하듯이 자신의 죄를 고하고 스스로 삶을 정리한다.

『창』은 이전 연애서사와 달리 남녀의 애정 관계에 주체와 타자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감정을 바탕으로 구성된 관계조차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맺어지고 헤어지는 현실 포착은 박경리가 이전에 여성인물을 통해 보여주었던 결벽성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정관계에서도 남성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

었던 위계성에서도 균열이 드러나고 시애, 선영을 통해 보이듯이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맹시헌과 맹시애 남매를 비롯한 남성, 여성 인물들의 애정관계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성규범과는 다른 모습이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남성인물과 지위, 열악한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과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을 나누는 여성인물의 등장은 이전 박경리 소설 속 인물과 차이가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결벽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던 여성인물은 더 이상 이상적 사랑이 아닌 현실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 교감하고 친밀성을 공유하고 있다.

『창』을 통해 드러난 여성인물의 섹슈얼리티는 타자화 되고 억압적인 통제의 대상이 아닌 행위 하는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섹슈얼리티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포류도」,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등 1970년대 이전 애정서사에서 보였던 불행한 결혼, 타락한 몸과 정조의 문제, 가족주의의 질서의 해체 등과 같은 전근대적 남성중심의 규범적 섹슈얼리티를 벗어나 성적 주체이자 행위 하는 주체로서 개인 남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환기적 시대의 한계는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인물을 통해 박경리 소설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다.

4. 나오며: 연민[22]의 확장과 공감적 사랑의 재구(再構)

일반적으로 연애서사의 핵심은 남녀가 운명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사랑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결혼

22) 스피노자(Spinoza)는 연민을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152쪽), "우리들과 비슷하다고 표상하는 타인에게 일어난 해악을 동반하는 슬픔"(194쪽)으로 정의하였다. Spinoza, B. *Ethica*. 〈에티카〉 , 강영계 역, 서광사, 2007.

에 이르는 혹은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과정과 결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경리의 연애서사는 남녀의 만남부터 성적으로 이끌리는 낭만적 연애 감정만이 아닌 자기연민에서 비롯된 '연민'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박경리의 『창』은 기존의 연애서사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전 작품에서 결벽증을 가진 여성인물의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의 성취 과정에서 조금의 결함도 용서치 않고 이상적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창』은 허구적 낭만적 사랑을 초극하고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박경리 장편소설을 통해 드러난 사랑의 의미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박경리의 연애서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출발점이다. 완벽하고 순결한 이상적 사랑이 목표가 아닌 상처 난대로 부족한대로 서로를 어여삐 여기는 연민의 감정은 조작된 사랑을 초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박경리의 소설에서 연애서사의 주체가 남성인물이냐 여성인물이냐 하는 성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절대적 우위에 있고 주체적 섹슈얼리티의 기준이었던 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에서 남성의 타자로서 섹슈얼리티가 구성되었던 여성이 성적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맹시애와 진우섭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연민의 감정과 공감의 정서는 당대 대중의 기대에 호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대중문화의 시대에 박경리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흥미를 끌고 읽힐 수 있었던 요인은 작가의 시대를 읽는 예리한 감각과 상상력뿐만 아니라 대중과 정서적, 감정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에 드러난 섹슈얼리티는 남성의 경우 권력관계와 연관하여,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의 대타적 관계로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박경리의 소설에 드러난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아노미 상태 놓여있던 1970년대 새로운 사회에 진입과장에서 드러난 비인간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박경리 작품에 드러난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비인간적 사회에 맞서 성적 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로 심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창』에 드러난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허구적 감정상태가 아닌 현실에 기반을 둔 인간적인 교감과 공감을 통한 소통의 과정이고 자기 소외의 극복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타자화 한다면 남성도 여성도 주체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 결국 서로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창』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와 섹슈얼리티를 살펴보았다. 박경리의 소설 속 사랑이 일반적인 연애서사와 달라지는 지점은 결국 연애서사의 목표가 남녀 간 사랑의 완성뿐만 아니라 성을 초월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은 박경리 문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와 그 이전의 문학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작품이며, 1970년대라는 시대적 혼란 속에 드러난 사회구조 변화의 단서를 사랑의 의미와 섹슈얼리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같은 시기에 쓰인 「밀고자」, 『나비와 엉겅퀴』, 『단층』 등 작품을 함께 논의한다면 1970년대 박경리 문학의 특성을 폭넓게 밝힐 수 있고, 박경리 문학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 생명사상과 같은 주제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박경리, 『창』, 지식산업사, 1980.

2. 단행본

니클라스 루만, 정성훈 · 권기돈 · 조형준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19-118쪽
비비아나 A. 젤라이저 지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옮김, 『친밀성의 거래』, 에코 리브르, 2009, 23-73쪽
울리헤 벡 • 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 강수영 • 권기돈 • 배은경 옮김, 『사랑은 지독한 혼란』, 새물결, 2006, 21-92쪽
앤소니 기든슨, 배은경 • 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 사랑 • 에로티시즘』, 새물결, 2003, 25-141쪽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0, 110-111쪽
조르조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75쪽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07, 152쪽.
이성숙, 『여성, 섹슈얼리티, 국가』, 책세상, 2009, 17-40쪽.

3. 논문

고지혜 『박경리 소설의 낭만적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51-60쪽.
구연상, 「서양 철학의 전통적 악 개념과 『토지』의 악(惡) 개념에 대한 비교 검토」, 『대동철학』 63, 대동철학회, 2013, 179-199쪽.
김미현, 「혐오의 매혹- 코맥 메카시의 『피의 자오선』」, 『미국소설』 18권 2호, 미국소설학회, 2011, 25-44쪽.
박상민, 「박경리 『토지』의 악의 상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44-60쪽.
박창범, 「『토지』의 사랑 양상과 그 의미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015, 191-220쪽.
방은주,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40쪽.
심진경, 「은폐와 투사-남성 섹슈얼리티의 두 가지 존재 방식」, 『여/성이론』 8, 2003년 6월, 81-102쪽.
이정옥, 「산업화의 명암과 성적 욕망의 서사- 1970년대 '창녀문학'에 나타

난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두 양상-」,『한국문학논총』 제 29집, 한국문학회, 2001, 387-388쪽.

_____,「산업자본주의시대의 여성의 삶과 서사」,『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235-256쪽.

이희은,「감응 연구의 관점에서 본 '현재'의 부재」,『언론과 사회』 22권 1호, 2014, 42-43쪽.

조윤아,「가해자를 통해 드러나는 도덕의 딜레마- 박경리의 장편소설『창』을 중심으로,「어문논집」 44, 중앙어문학회, 2010, 341-364쪽.

최경희,「1960년대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연애교양' 담론 연구」,『국제한인문학연구』 10, 국제한인문학회, 2012, 257-292쪽.

홍준기,「악과 폭력에 관한 형이상학적, 정치신학적, 정신분석적 연구」,『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9, 한국라깡과 정신분석학회, 2017, 135-175쪽.

추광영,「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서울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 2011, 111-144쪽.

추광영,「1960~70년대 한국의 사회변동과 매스미디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261-267쪽.

Abstract

A study for the meaning of Love and Sexuality in Park Kyung-Ri's Novel- focus on "Windows(Chang)"

Jang, M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love and sexuality which was revealed in popular love stories "Windows(Chang)" that Park-KyungRi has published in 1970s. The main narration of those works is romance, which is a typical feature of a popular love story. However, a social consensus about love and sexuality, as well as the change of Park's view of the world, can be found as the romance in the stories includes the social importance and the social discourse about love.

"Windows(Chang)" in 1970's are examples of few works which were published while Park has been writing "Toji: the Land", and those were written in a period in which Park's view of the world has extended beyond the autobiographical description to the interest on society and life. In those works, the character's point of view has changed from women to men and the meaning of the love has shifted from the pursuit of fastidiousness to the transcendent love though facing reality and having empathetic sympathy. Furthermore, it would be shown that the modern sexuality resists and competes with male-oriented normative sexuality required by the patriarchal society.

Park-KyungRi not only has a popular appeal, also questions social change and the normative perception. Also the signs of this

change are becoming a starting point for “Thought of the Life” based on universal humanity.

Key words : Popular love story, Gender, The meaning of the love, Sexuality, Transcendent love, Norms, Empathy, relational sexuality, Sympathic love

■ 본 논문은 2017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